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1일 화요일 음 3월 30일 (7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19℃, 낮 최고기온은 20-22℃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Time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4 rows of weather data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and 2 rows of sunrise/sunset times for Jeju and Seogwi.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Table with 2 columns: Air Quality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and 4 rows of pollution levels for PM10 and PM2.5.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2 rows of weather forecasts for Jeju and Seogwi.

월드뉴스

돈 너무 풀었나... 미국 물가 '경충'

인플레이션 경고음 나와

코로나19 사태에서 급반등 중인 미국 곳곳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과일, 채소 등 식료품까지 최근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일 년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마트에서 유통되는 사과 가격은 올해 들어 10~20%가량 상승했고, 바나나와 양파 등도 판매가가 뛰었다.

신생아 기저귀와 여성용품 등 생활 필수품도 가격이 올랐다.

당장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채소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소비자가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고 이 신



미국의 대형마트 전경.

문은 전했다.

신선식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저가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다.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역시 1일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경제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김윤우 무릉외갓집

"아~ 요즘 정말 웃프다 T T"

내일 모레면 70을 앞둔 고향선배로부터 문자 메시지가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통화를 드렸더니 긴 한숨과 함께 토해내는 이야기 주제는 마늘이었다.

얼마 정도나 될 것 같냐는 물음에 거침없이 kg당 3500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확신에 찬 답을 한다.

마늘 웃프다

질문에 "수확량이 크게 줄 것 같다"라는 힘 없는 답으로 앞서 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되새김질하게 만든다.

불과 열흘전만 하더라도 높게 형성되는 포전거래가격으로 싱글빙글(?)거리던 마늘풍경이 현재처럼 떨어질 것 같은 수확량으로 인해 지금은 말 그대로 웃프기만 한 모양새라는 얘기가.

낮과 밤 기온이 현격하게 다른 일교차가 이런 사달을 만드는 것 같다.

아직도 어느 정도는 뚜꺼운 이불이 필요한 아침 기온으로 볼 때 마늘 생육에 필요한 적정온도는 필수적이다.

특히 구 비대기인 지난 4월 중순 이후 적정 생육온도는 마늘구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그렇다.

죽이다. 가뜰이나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

마늘종 출현이 예년에 비해 5-7일 정도 빠른 것으로 볼 때 이번 주부터 마늘 수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마늘특성으로 파종에서부터 피복과 타공 그리고 종뿌기를 거쳐 마늘을 뽑고, 자르고, 망사에 담는 전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다.

여기에서부터 마늘 수매기간이 짧아 대부분 농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작업일정을 진행하다보니 수확기 일손 부족은 물론 인건비 상승까지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할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마늘수매행태는 25년전인 1996년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 농가가 수매현장까지 마늘을 실어오면 차량 개근과 함께 검품을 하고 일정량의 수매와 동시에 육지부 수매업체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장할 하는 사업형태가 1990년대 중반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낮과 밤의 온도차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부분이나 어쩔 수 없다 해도 차제에 수매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어떤가 싶다.

일찍이 거론이 돼왔던 마늘 건조시설 구축이다.

물론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겠지만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나 비료 창고 등을 활용하고 일정부분은 농가 창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열린마당

원도심 도보투어 '하영울레' 개장합니다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는 시정 중점사업인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첫걸음인 원도심 도보투어 '하영울레'를 5월 29일 개장한다.

'하영울레'는 갈매생태공원, 칠십리공원, 새섬공원, 자구리공원 등 원도심 공원 6곳과 이종섭거리,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아랑조울거리 등 특화거리 3곳을 순회하는 도보투어이다.

특히 하영울레길은 육지와 다르게 도심과 골목길의 풍경은 물론 도심 속 물이 있는 공원, 바다와 폭포, 돌담길 등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음악여행을 떠나요



김수정 제주시 아라동 맞춤형복지팀장

나는 음악듣기를 좋아한다.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지만 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오디오를 켜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듣는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곡 아니, 더 정확하게는 가장 감동받은 곡을 꼽으라면 최근에 출간된 김민기의 '봉우리'라는 노래가 손꼽힐 것 같다.

가수 특유의 저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며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저절로 자제가 낮춰지고 겸손해지며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얕만 보고 열심히 달렸고 기쁜 마음으로 정상에 섰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내가 오른 곳이 정상이다.

아니라 아주 작은 봉우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가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노래이다.

지금도 누군가보다 잘하려고 누군가보다 먼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더워지는 날씨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오랜시간 함께 생활하는 가족간의 트러블이 생기거나 제한된 만남으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절의 여왕 5월, 여행계획을 세우고 만남을 기약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만남, 방문, 외출, 여행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여행을 시도하는 것은 어떤가?

나도 '봉우리'라는 노래로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말이다.

Advertisement for '감귤 신제품 분양' (Citru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1, listing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국내개발 우수한 [신제품] 감귤묘목 분양' (Domestic Development Excellent New Product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by Jeju Hanra Farm.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ll Varieties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with a list of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제주도정소식' (Jeju Government News) regarding the 'Jeju Citizen Welfare Fund' and other local government activities.